

Gary Yates 박사, 예레미야, 강의 22, 예레미야 27-29, 예언적 갈등

© 2024 게리 예이츠와 테드 힐데브란트

예레미야서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Gary Yates입니다. 이것은 22회기, 예레미야서 27-29장, 예언적 갈등입니다.

이번 세션의 초점은 예레미야서 27장부터 29장까지입니다.

우리는 특히 예언적 갈등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명기 18장에 나와 있는 참된 선지자의 자질과 특성인 예레미야 23장을 연구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의 메시지와 심판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는 이성과 합리화.

예언적 갈등의 문제는 27~29장에서도 전면에 등장할 것입니다. 또한 이 구절을 우리가 연구해온 구조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26장부터 45장까지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이야기와 그 배후에 있는 신학적 목적을 이야기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이 궁극적으로 포로의 심판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언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여호와께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구절 주변의 여호야김 틀을 보았거나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26~35장, 36~45장. 여호야김의 사역 당시부터 이 이야기를 읽는 데 도움이 되는 네 가지 사건과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호야김 시대는 유다가 여호와를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왕의 반역과 배척이 결국 유다의 심판을 가져오고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지난 세션에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제안이 주어졌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각 패널의 마지막에 있는 생명의 약속은 아주 작은 남은 자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패널인 35장에는 가문의 전통을 충실히 지켜온 이 무명 지파인 레갑 족속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레갑

족속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두 번째 패널에는 예레미야의 충실한 서기관이었던 바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는 선지자였습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와 같은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서기관이었습니다.

그의 신실함으로 인해 그는 국가 심판의 상황에서 생명을 약속 받았습니다. 그러나 레갑 족속의 구원과 바룩의 생명이 있는 이 두 부분의 마지막에는 또한 나라 전체에 대한 심판도 있습니다. 34장에서는 유다 백성과 왕이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종들을 해방시키겠다는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44장에서는 애굽에 남아 있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에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조의 외부 부분과 프레임 자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돌아서서 구조 내부를 살펴보고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구조에 대해 한 마디나 코멘트를 하고 싶습니다. 나는 예레미야서의 특정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똑같이 타당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다른 구조를 제시할 다른 학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섹션을 살펴보고 구조를 이런 식으로 나눌 것이라는 여러 연구를 보았습니다. 26장부터 36장까지는 여호야김이 주님의 말씀을 거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26장에서 36장까지 이어지는 두 번째 부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7장 이하에서는 유다 국가의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대략 연대순으로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구조를 설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제시하는 구조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책을 읽는 확실한 방법이다. 내 생각에 그것은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책의 구조와 디자인의 일부를 반영하는 책을 읽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작가의 마음 속에 있었던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기는 종종 어렵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 모든 것에 일관성을 제공하는 구조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러한 구조는 일반적인 수준으로 유지할 때 더 효과적으로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유사점을 언급할 때, 우리가 구조를 개발할 수 있거나 학자들이 너무 복잡한 구조를 개발하여 예레미야와 바룩이 이런 종류의 작업을 수행하려면 컴퓨터가 있어야 했을 것이라고 거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이사야서는 선지자가 이것을 행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적인 패턴과 일반적인 디자인을 보여주는 구조가 보입니다. 이는 섹션을 26~35, 36~45로 나누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패널 내에서 이 구조의 중간에는 26~35장에서 여호야김 시대에 그들에게 제시된 것과는 매우 다른 한 백성과 나라로서 유다가 직면한 선택이 있습니다.

구조 내부에서는 시드기야 시대를 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호야김 시대, 즉 609년부터 597년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조 내에서 우리는 주로 BC 597년부터 586년까지 통치했던 시드기야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국가로서 유다의 마지막 날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장에서 여호야김에게 주어진 희망과 가능성은 아마도 당신과 백성들이 반응할 것이고 당신은 심판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판을 피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져올 파괴와 파괴를 경험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이 있는 진정한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와 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유다가 지금 직면한 선택이 중요한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드기야와 백성이 가진 두 가지 선택은 바벨론에 복종하고, 그들에게 항복하고, 심판을 면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만일 당신이 그들에게 굴복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복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당신을 살려 주실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저항하고, 죄를 고집한다면, 군사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완전한 파멸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의 선택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여 심판을 면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와 백성이 직면한 선택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27~29장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루며 시드기야 통치 기간 동안 계속되고 있던 예언적 갈등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벨론의 위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기를 바라시며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까요? 유다가 언약을 어겼다는 예레미야의 관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주님께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내리겠다고 경고하신 언약의 저주 중 하나는 군사적 침략과 포로라는 언약의 저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세우신 언약에 따라 무너진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여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보거나 이에 반응합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들은 완전히 멸망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들이 바벨론에 예속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나라들에 대한 통치권을 주셨으며, 그 통치권에는 유다 나라도 포함됩니다. 예레미야를 반대한 선지자들은 언약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의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축복하실 의무가 있으며,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군대가 오고 있으며 여러분이 겪고 있는 포로의 물결은 점점 더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곳에 정착하여 집을 짓고 결혼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바벨론 왕에게 복종하며 바벨론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언약에 대한 잘못된 견해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몇 년 안에 그들을 구출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위기는 곧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7-29장에서 토론과 토론을 합니다. 바벨론의 위기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고, 선지자들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37-39장의 두 번째 패널과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우리는 시드기야 시대에 있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 마지막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정치적, 군사적 관료들이 토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빌론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패널에서 예레미야는 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바벨론에 복종하고 살아남으십시오. 선지자들의 불완전한 약속을 듣고 계속 저항하고 있는 관리들과 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패널의 유사점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27-29, 37-39절에서 주요 초점이 될 바벨론에 복종하는 문제는 어떻습니까? 27-29장에는 두 가지 예언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믿습니까? 우리는 바벨론에 복종하고 우리의 길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평화의 선지자들의 거짓 약속을 믿고 계속 저항할 것인가? 그 결과 예루살렘은 멸망될 것이며 우리는 37-39장에서 이에 대한 기록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27-29장과 37-39장 사이에는 경고와 성취의 병행도 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이제 돌아가서 27-29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바벨론에 복종하라는 메시지 때문에 예레미야가 견디고 겪게 될 예언적 갈등의 세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기 중앙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리들과 왕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이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과연 유다의 생명과 나라, 그들의 운명은 결국 그들이 이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학의 중요성을 실제적인 수준에서 상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믿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인생에서 내리는 가장 중요한 결정과 행동을 결정합니다. 평화의 선지자들의 신학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신학은 우리에게 현실에 대해 매우 다른 두 가지 이해를 제공하며, 그 신학에 기초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궁극적으로 유다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신학에 관한 논쟁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어쨌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천하는 데 집중합시다.

나는 그들이 매우 실제적인 것, 즉 우리의 신학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방식의 중요성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27-29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학에 관한 논쟁이 있습니다. 27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드기야 왕의 통치 초기에." 좋아, 시드기야가 기원전 609년에 왕위에 오른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28장에서는 그곳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27년의 사건과 같은 해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해에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하기 시작한 지 넷째 해 다섯째 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드기야 왕 4년은 BC 593년입니다. 그래서 그때입니다. 이것이 27장과 28장에서 우리가 보게 될 사건의 연대기적 맥락입니다. 이제 27장의 첫 구절인 1절에 제가 주목하고 싶은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ESV와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 시드기야 통치 초기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섹션에 제공된 제목입니다. 히브리어 번역에서는 "...여호야김의 통치 초기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야김 틀과 26장, 36장, 45장에 여호야김에 관한 구절들만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히브리어 본문에는 27장 1절에 여호야김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헬라어 본문에는 제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살펴보면, 그것은 분명히 시드기야 통치 시대의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MT에 나오는 제목인 "...여호야김의

통치에"라는 제목은 나중에 추가된 제목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호야김을 시드기야로 읽도록 수정한 영어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의 프레임워크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593년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유다 주변 국가인 여러 나라의 대사 대표단이 시드기야와의 회의를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번 회의의 목적은 이 작은 나라들이 스스로, 그리고 그들 스스로로는 바빌론 군대의 힘을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침략에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것은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지난 세기 앗시리아 위기 동안 유다와 민족 국가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동맹을 맺을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동네의 큰 강패에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레미야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이 나라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어떠한 저항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평가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 군대의 규모와 그들의 군대 규모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바벨론인들이 하나님의 심판 도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시하신 내용에 대한 예레미야의 이해에 기초한 신학적 평가입니다. 아시리아 위기 동안 이사야는 아시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지팡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저항하고 저항하는 것은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개최하고 있는 이 회의, 즉 정치적 상황이나 정치적 해결책을 계획하고 종합하는 회의는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예레미야 51장 59절에서 시드기야가 실제로 593년에 바벨론으로 가야 했다는 것을 읽습니다. 그는 다시 보내졌지만 왕좌에 남아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과 바빌로니아인들이 이 회의에 대해 듣지 못했고 시드기야로부터 보고를 원하는지 궁금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시드기야는 그들에게 자신의 지속적인 충성심과 그들에게 경의를 표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597년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여호야긴을 빼앗을 때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웠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드기야를 그들의 꼭두각시로 세웠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충성하고 조공을 바치는 한 왕좌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약점 때문에 시드기야에게 일어나는 일은 시드기야가 그 사이를 왔다갔다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바빌로니아 사람들에게 계속 저항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에게 복종할 것인가? 시드기야는 군 관리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어요. 우리가 힘을 모으고, 올바른 전략을 세우고, 올바른 연합을 발전시킨다면, 우리는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당신에게는 기회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들을 느부갓네살에게 굴복시키라고 명하셨고, 그에 대한 어떤 저항도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27장에서 시드기야와 다른 대표자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세 번 반복할 것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저항은 헛된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으로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 전하라. 좋습니다. 모든 나라에 전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의 큰 능력과 나의 편 팔로 땅과 땅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을 창조하였느니라. 그리고 나에게 옳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그것을 줍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것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고 들짐승도 그에게 주어 그를 섬기게 하였느니라.

보십시오, 주님께서서는 내가 세상의 창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지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다.

나는 느부갓네살이 모든 나라를 다스릴 주권자요 창조주로서 이런 일들을 정할 것을 선언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느부갓네살에게 나라들뿐 아니라 심지어 동물까지 다스리게 함으로써 느부갓네살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형상인 제2의 아담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느부갓네살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 정치적 연합은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열방에게 경고가 있습니다.

8절. 만일 어떤 나라나 어떤 나라든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지 아니하면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나라를 벌하리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것을 다 먹을 때까지. 그리고 지금은 예레미야가 목에 멍에를 메고 있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멍에는 정복의 메시지를 상징하는 나무 멍에입니다. 그는 단지 이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그분은 나라들과 이 사절들에게 구체적인 경고를 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바벨론의 패권에 저항할 수 있다고 말하는 너희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흥미로운 점은 예레미야가 두 번째 청중에게 이 메시지를 전할 때(10절), 그곳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은 유다를 다른 모든 나라들과 동등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들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일에 관여하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있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두로와 시돈 족속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며, 여호와께서 시드기야에게 주시려는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다윗 왕으로서의 그의 지위는 그를 바벨론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에 복종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희망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당신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27장 6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이 나옵니다. 25장에도 같은 말이 나옵니다.

유다의 지난 역사와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에 몸을 맡기시니라. 하나님은 다윗 왕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는 다윗 왕을 자신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를 왕좌에 앉히니 여호와께서 이 왕에 대하여 이르시되 이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왕을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으니 모든 나라가 복종하리라 그에게.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나에게 대답할 것이다.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부섭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하늘 주권과 주권을 지상에서 대표하여 땅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내가 땅의 모든 나라를 주어 다윗의 권세 아래 두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뉴저지 정도의 크기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놀라운 진술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왕들은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 마련은 예레미야 시대에 바뀌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이자 하나님의 부섭정이 된 사람은 느부갓네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드기야여, 다윗의 왕이 되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는다고 해서 이 일에서 면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희는 이 모든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복종해야 한다. 14절: 너희는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거짓이니라 그들이 당신에게 예언하고 있는 사람은 세커입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당신이 이 거짓 메시지를 듣는다면, 당신이 이 거짓 신학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벨론에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지자가 유다를 다른 모든 나라들과 동등하게 만드는 방식이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일을 할 다른 선지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 대한 심판을 전파하면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깎아내리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방 나라들보다 나을 것이 없도다 하리라 이 일을 특히 효과적으로 수행한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선지자 아모스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를 수행합니다. 나는 이것을 아주 빨리 언급하고 예레미야 27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열국에 대한 일련의 심판 연설로 그의 신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연설, 즉 최후의 심판 연설로 보이는 연설에는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적인 유다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축하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래, 맵소사, 가서 가져오세요. 우리 주변의 모든 이교도 민족을 얻으십시오. 그러나 아모스가 전하는 여덟 번째 신탁은 이스라엘 자체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와, 망치가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실이 그들이 심판에서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모스 3장 1절과 2절에서 아모스는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여 말씀하신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온 족속을 향하여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그래서 당신은 그것을 듣습니다.
응, 됐어.

그들은 특별하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구상의 다른 어떤 가족도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모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벌하리라. 그러므로 그분은 당신이 온 땅에서 선택된 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축복하고 보호하며 지켜주겠다.

아니, 그 특별한 인연 때문에 책임감이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과로 나는 당신을 처벌할 것입니다. 아모스 3장 후반 9절에서 너는 아스돗에 있는 산성들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산성에 이 모든 외국 땅을 선포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에 모여서 그 땅을 보라 하라 그 안에 큰 소동이 있고 그 중에 있는 모든 억압받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들은 옳은 일을 행할 줄 모른다고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요새에 폭력과 강탈을 쌓아 놓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다른 모든 나라의 대표자들을 사마리아로 와서 자리에 앉아 그 도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악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서 면제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들을 평준화하며 말합니다. "이봐, 당신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도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 메시지가 반복됩니다(27장 16절). 선지자는 이 메시지를 세 번이나 말하게 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메시지가 누구에게 전달되는지 들어보십시오.

그런 다음 나는 제사장과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 메시지는 왕에게만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사람은 바로 국민이며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듣지 말라고 했습니다.

미안합니다(16절).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보라, 여호와의 집의 기구들이 이제 속히 바벨론에서 도로 옮겨오리라.

보라,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말을 예언하고 있다. 좋아요? 그래서 27장에서 예레미야는 세 번이나 바벨론에게 복종하라는 선언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들을 견디거나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것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 번, 이 잘못된 믿음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선지자들입니다.

세겔의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은 여호와께서 보내지 아니하신 백성에게 약속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다시, 우리는 예언적 갈등의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루살렘 라디오 토크쇼의 주요 주제는 바빌론의 위기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레미야가 인터뷰에 초대되었고 반대편에 누군가가 초대되었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을 꽤 분명하게 볼 수 있지만 그것이 27장에서 29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투쟁입니다.

이에 대한 두 번째 예는 28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서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이는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와 대결한 가장 흥미로운 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우리가 두 가지 다른 메시지를 볼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 사람들 중 누가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판단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투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항이 헛되다고 예언된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하나냐가 있는데, 본문에서는 선지자로 언급되어 있지만 전혀 반대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사람들 중 하나라면 하나냐의 메시지를 듣고 싶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훨씬 더 긍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면 이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항하면 멸망할 것이다. 내 말은, 그들은 이미 하나냐의 말을 듣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장의 예레미야서 그리스어 번역에서 우리는 흥미로운 점을 발견합니다.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 사이비 선지자로 불립니다. 그러나 히브리어로 된 마소라 본문에서는 예레미야와 하나냐가 모두 같은 용어로 언급됩니다.

둘 다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실제로 MT에서는 이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 선지자라는 용어가 여러 번 추가되었습니다. 여기 자신이 선지자라고 주장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를 선지자로 언급하는 특정 구절이 있다는 것도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5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했습니다. 혼란스러워합니다.

15절에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선지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이 두 사람 모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하나냐의 메시지를 기억합시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복종하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무 멍에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저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나라들에 대한 바벨론의 주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냐는 매우 공격적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 많은 후려침이 필요하지만 그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 주십니다.

그는 그것을 땅에 박살냅니다. 그리고 그는 예레미야가 모든 것을 잘못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장기적인 문제가 되는 대신 2년 안에 우리는 구출될 것이며 이 바벨론의 위기에 관한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확신시키려고 노력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예레미야보다 더 설득력 있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있습니다. 제가 예언적 거울이라고 부르는 서술적인 일이 여기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말합니다.

내 말은, 하나님이 나서서 여러분, 저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알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에서 때때로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였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유효한 메시지를 전달하셨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표징 행위를 합니다. 그는 나무 멩에를 차고 있다.

하나님은 표징 행위를 합니다. 그분은 멩에를 깨뜨리시고 그에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의 긴장감을 조금 더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지자로서 신뢰성과 자격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또한 그의 메시지의 기반이 되는 과거의 신학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온 시편 46편에서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를 이야기할 때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와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 시온은 요동치 아니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온 세상을 뒤흔드는 폭풍, 예루살렘은 폭풍의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비록 이 물이 으르렁거리고 거품을 일으키고 격노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는 도시를 흐르는 평화로운 강과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축복을 백성들에게 가져다주는 기혼의 샘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시온은 적군의 공격을 받아도 안전하며, 이 나라들이 분노하고 포효하고 거품을
일으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지키도록 자신에게 의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여러 면에서 시온의 전통에 호소하는 이사야의 설교를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17장 12절의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시편 46편에 나오는
것과 동일한 이미지가 이 구절에도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들이 바다의 천둥소리와 같은 천둥소리를 낸다고 말합니다. 시편
46편과 같은 열방의 분노. 그들은 거센 물소리처럼 포효합니다.

나라들이 큰 물소리 같이 으르렁거릴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니
그들이 멀리 도망하리라. 바람 앞에서 산의 거처럼, 폭풍 앞에서 소용돌이치는
먼지처럼. 저녁때에는 공포를 보려니와 아침이 되기 전에는 더 이상 없느니라.

그러므로 밤에는 상황이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하고
포효하는 이 나라들은 아침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매우 쉽게 호소할 수 있었던 과거의 신학 전통이
있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701년에 앗수르로부터 예루살렘 성을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에 호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정말 극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앗수르 군대는 18만 명으로 그 도시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한밤중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입니다. 살펴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한 다른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파멸과 우울함을 이야기하는 예레미야라는 사람의 말을 왜 들어야 합니까? 좋아요, 하나냐의 메시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28장 3절 히브리어 본문에서 그가 2년 안에 내가 이 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하였느니라. 본문이 실제로 말하는 것은 이것이 이틀 안에, 이 옴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옴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하루 24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의 창조 시대에 그것에 관해 큰 논쟁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여기서도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옴(Yom)은 일정 기간, 즉 주의 날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단순히 2년 이내라고만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는 실제로 이틀 안에 내가 그 장소를 다시 가져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가 문자적으로 48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28:11 하나냐가 멩에를 꺾은 후에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이틀 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멩에를 열방의 목에서 꺾으리라 좋아요. 따라서 2년을 예언하는 것과 이틀 동안 이 관용어를 사용하면 구원이 정말 곧 다가올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선지자들의 과거 신학 전통에 비추어 이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냐에게는 증거문, 즉 그가 찾아볼 수 있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선지자인 호세아는 6장 1절과 2절에서 심판 후의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과 회복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할 말은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심은 고치려 하심이니라' 하십니다. 이틀 후에 그분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사 우리가 그 앞에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할 수도 있지만, 짧은 시간 안에, 이틀 안에, 삼일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냐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중 한 명이라면 한 선지자는 멍에를 메고 있고 다른 선지자는 멍에를 떼고 있다면 이 시점에서 나는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차이점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긴장감을 더해주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냐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도 조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냐가 나서서 자신의 멍에를 부수는 대담한 행동을 했을 때, 선지자의 정상적인 반응은 즉시 화를 내며 이 사람의 얼굴에다가 손가락을 가리키는 것이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28장 5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제사장과 모든 백성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멘. 그것은 할 수 있다. 선지자 편에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의 집 기구들과 모든 포로들을 바벨론에서 이 곳으로 다시 가져오기를 원하노라. 예레미야야, 이 선지자가 그의 목에서 멍에를 뜯어 꺾고 예레미야의 설교를 중단시켰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는 아멘이라고 말한다. 있잖아, 나도 그거 보고 싶어.

당신의 메시지는 내가 설교했던 것보다 더 좋게 들립니다. 따라서 예레미야가 여기서 비꼬는 말을 하지 않는 이상, 예레미야는 어쩌면 하나냐,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방해하려고 당신을 보내셨을지도 모른다는 진정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레미야의 더 완전한 반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시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가능성도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냐의 메시지가 이 특별한 시대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는 올바른 메시지였을지 모르지만, 이 특별한 상황에서는 올바른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그 이유를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선지자가 누구인지 고민해야 했던 이 사람들을 도울 것입니다.

검은 셔츠를 입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흰 셔츠를 입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좋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쁜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는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누구는 아니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레미야 28장 8절에 보면, 나와 너보다 앞서 있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나라와 큰 나라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당신은 예언의 전통을 갖고 있지만 나에게도 예언의 전통이 있습니다.

나는 호세아에게 갈 수 있고, 심지어는 당신의 선지자 이사야에게도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아모스에게 갈 수 있습니다. 미카에게 갈 수 있어요. 선지자들이 전쟁, 기근, 심판을 선포했다는 전통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이것을 발표할 때의 반응은 그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이 항상 움직이기 시작하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대응해야 할 긴급 상황이 아니면 나팔은 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선지자들이 사람들에게 심판과 기근과 전쟁을 끊임없이 경고하는 예언적 전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 해야 할 합당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충실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약의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리고 만일 유다가 이때 이것을 정직하게 행하고 이러한 평화의 약속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대신에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디에 서 있는지 평가한다면 그들은 우상을 보게 될 것이고 우상 숭배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평화 이데올로기는 그들의 마음을 진리에 눈멀게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가 심판을 말할 때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합니다.

좋아요. 하나냐야 너는 화평을 예언하는 선지자(9절)와 그 선지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여호와께서 참으로 그 선지자를 보내신 줄 알게 되리라. 그러므로 선지자가 심판을 예언할 때 우리는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평가합니다.

선지자가 평화를 약속한다면 우리는 확증이 있을 때만 그 메시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27장에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런 도전을 제시합니다. 좋습니다.

당신은 선언하고 있고, 조금 있으면 판결이 끝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글쎄, 현대 사건과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모든 것은 그것에 반대하는 논쟁입니다. 추방의 물결, 605, 첫 번째 그룹, 597, 두 번째 그룹이 탈취된 이후에 이 물결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는 593에 있고 그들은 여전히 평가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를 바알의 손에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예레미야의 말대로 심판의 선지자가 너희에게 경고하면 너희는 시간을 갖고 판단하라 하였느니라. 신학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이 가운데 개입하여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때만 그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르시되 만일 그 사람들이 만일 선지자들이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있으면 그들로 만군의 여호와께 간구하여 여호와의 전에 남아 있는 기구들을, 유다 왕의 집과 예루살렘에서는 바벨론으로 갈 수 없습니다. 좋아요. 그는 말합니다. 만약 그들이 진정한 선지자이고 이 위기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에게 약간의 시험을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단한 일을 행하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십시오. 그냥 597년에 느부갓네살이 빼앗아간 그릇들을 다시 가져오세요. 그들은 그것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확인도 없이, 그들이 겪고 있는 비참한 상황과 반복되는 주님의 언약 불충실에 비추어 볼 때, 현시점에서 평화의 선지자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예레미야가 이 논쟁에 좀 더 참여했다면, 이사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면 이사야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냐는 마치 이사야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의 구원을 예언했고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가 옳아. 평화의 선지자는 자신을 입증해야 합니다.

네, 하지만 아직 이사야가 있어요. 예레미야는 그 책으로 돌아가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방식으로 반응할 때만 선지자 이사야가 구원을 약속했다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반응이 없다면 당신이 전하는 평화의 메시지에선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확실히 여기서 난관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나요? 예레미야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당신의 언약 불신앙에 비추어 볼 때, 나는 재난과 재난에 대해 경고해 온 선지자들의 오랜 전통을 따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이 사람의 메시지를 믿는다면, 2m 안에 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몇 가지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궁극적으로 아멘,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두세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냐에게 내려질 형벌에는 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메시지를 반대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꺾은 나무 멍에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쇠 멍에를 놓으실 것이라. 보세요, 여러분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져오실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냐에게 개인적으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냐, 주님께서 당신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모든 예언적 반영을 할 수 있지만 주님은 당신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백성으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라 네가 여호와를 거역하는 말을 하였으므로 올해 너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17절 마지막 구절을 보면 그 해 일곱째 달에 선지자 하나냐가 죽었습니다.

좋아요,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범죄에 맞는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냐는 2년 안에 위기가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두 달도 안 되어 하나냐가 죽었습니다. 평화의 선지자들은 생명을 약속했습니다. 현실은 그들이 그들을 따른다면 선지자들이 겪었던 것과 같은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29장에 나오는 예언적 갈등의 세 번째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제는 바벨론에 대한 복종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반대의 맥락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레미야를 반대하는 선지자들이 바벨론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참된 선지자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에스겔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거기에 있었고, 사람들에게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일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일은 곧 끝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들에게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29장 초반에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내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살아보세요.

정원을 가꾸고 그 농산물을 먹어보세요. 아내를 맞이하여 아들과 딸을 낳으라. 당신의 아들들을 위해 아내를 맞이하십시오.

너희 딸들을 시집보내서 그들도 아들딸을 낳게 하여라. 거기에 곱하고 감소하지 마십시오. 오직 내가 너희를 사로잡아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 성을 위하여 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복지에서 당신은 바빌론의 살롬을 통해 올 당신의 복지, 즉 살롬을 찾을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에게 너희를 속이지 말며 그들의 거짓되고 헛된 약속을 듣지 말라. 여기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직 그 땅에 남아 있는 백성에게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바벨론에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망명자들에게 그것은 당신이 한동안 여기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일상생활에서 하는 일을 하십시오. 집을 짓고, 포도원을 심고, 농작물을 재배하고, 자녀를 낳으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약속의 땅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그들의 약속의 땅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심지 아니한 성읍과 집과 포도원을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약속의 땅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일시적으로 바빌론은 그들의 약속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원래의 합의에서 언약의 축복과 관련된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를 갖다. 거기에서 아이들을 낳아라.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는 시편을 기억하십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대체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듯이 이것은 꽤 전복적인 신학입니다.

예루살렘은 더 이상 살롬의 도시가 아닙니다. 바빌론은. 그리고 당신이 그곳에 정착하고, 바벨론에 복종하고 잠시 그곳에 머물겠다는 생각을 버리면,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당신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좋아요?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주는 거짓 희망과 대조되는 유다의 진짜 희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이나 10절에 보면 바벨론의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내 약속을 너희에게 이루어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알았어, 진정해.

추방은 한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약속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레미야서의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예레미야서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생각이니라

좋아요? 다른 사람의 약속을 자신이 주장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복지와 복지를 염두에 두고 계시다는 일반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코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약속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위험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은 심판 때에 이미 빼앗긴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이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 면에서 스스로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한 현대 기독교 작가는 예레미야 29장에 관해 이 구절이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삶을 살기 시작하자마자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괜찮은? 저는 로마서 8장 28절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자로서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는 약속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보장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도 같은 일을 합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다.

모든 사람은 모자, 신발, 장갑에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어. 9회에는 홈런을 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 이러한 약속을 받아들이는 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들을 심판과 위험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포로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는 그 신학의 전복성 때문에 일단의 선지자들에 의해 반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은 하나냐와 유다에 속한 선지자들이 아니니라. 포로 중에 바벨론에 있는 선지자들이니라. 이 섹션에서는 그 중 몇 가지를 언급합니다.

그 중 두 사람이 21절에 나옵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 중의 하나인 아합과 또 하나의 시드기야라 하는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것은 왕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같은 이름의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그들은 약속했습니다.

보세요, 잠시 후면 유배 생활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70년 만에 여기에 정착하라고 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평화에 대한 공허한 약속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네 목전에서 그들을 칠 것이라. 그들 때문에 유다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모든 사람들이 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리라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느부갓네살은 궁극적으로 그들이 약속한 평화를 전복시키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불에 구웠습니다.

나는 우리가 이것을 알아차렸으면 좋겠다. 하나냐는 어떻게 되나요? 그는 두 달 안에 죽습니다. 아합과 시드기야는 어떻게 되나요? 그들은 주님께서 당신을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지 때문에 죽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평화의 선지자는 궁극적으로 죽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삶은 주님의 말씀을 참으로 전하는 선지자들을 따르는 데서 옵니다. 쉽지 않은 메시지입니다. 심판에 대한 생각을 일축하는 메시지는 아니지만, 공허한 평화의 약속은 결코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삶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언급된 마지막 선지자는 삼마야입니다. 그리고 삼마야는 하나냐처럼 예언적 반영 행위에 참여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스마야는 반대 방향으로 편지를 써서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신하여 이르기를 이 사람 예레미야가 포로들에게 이르노라 하리라 그들은 배달되지 않을 것이고, 그냥 정착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질책받아야 합니다. 그는 감옥에 갇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적 반영의 이 모든 갈등은 다시 계속됩니다. 누구의 말이 설 것인가? 예레미야는 스마야가 거짓말을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한다. 이런 사람은 결코 회복의 축복을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전체에 걸쳐 끊임없이 평화의 선지자들이 헛된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주는 것은 예레미야의 메시지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식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리실 심판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돌아올 때 궁극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예언적 갈등, 평화의 선지자, 주님의 사자, 하나님의 참된 사자, 이것이 바로 이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 내리는 결정, 유다 지도자들이 37-39장에서 이 메시지에 관해 내릴 결정, 우리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삶과 죽음의 문제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Gary Yates입니다. 이것은 22회기, 예레미야서 27-29장, 예언적 갈등입니다.